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 ~ 4/8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내게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기 전에 나는 영범의 편집부	법륜	불광출판사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뽕애플카스	7	인생아 웃어라	원영	캘리온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8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세주묘엄품 1)	무비	담앤북스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명규 붓다(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정중천	운주사
5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슌모	담앤북스	10	마음 맑게 비결(해안 스님 선어록 강설)	동명	나라연



<화엄경>은 얽힌 세상사 푸는 열쇠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세주묘엄품 1~5권

여천 무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각권 1만2천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엄경> 강설본이 출간됐다. 무비 스님(사 진·동화사 한문 불전승가대학원장)의 <대방광불 화엄경>으로, 우선 1차분으로 세주묘엄품 1~5권이 출간됐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으로, 오래전부터 강설본의 출간이 요구됐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과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출간이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당나라 시대 이후 정량 정관, 이동현 장자 등에 의해 3~4차례만 시도되었던 대역사이고, 근대 이후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 번도 시도되지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사였다. 저자 무비 스님이 2013년부터 80권 완간을 목표로 준비한 <화엄경> 강설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8~10권씩 모두 10년에 걸쳐 완간될 예정이다.



‘최고의 경전’이자 ‘어려운 경전’ <화엄경>의 국내 첫 강설본 출간
세주묘엄품 5권 1차 출간
80권 완간 10년 대장정 원력

지대하다. 원효와 의상은 한국에 화엄철학의 기초를 다지고 화엄종의 문을 연 한국 사상계의 대표적 두 거목이다. 이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승과(僧科)에서도 <화엄경>은 빠져본 적이 없다. 특히 ‘종교’로서의 불교가 큰 위기에 처했던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승려는 물론 유학자들도 <화엄경> 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는 초의 선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화엄경>을 읽고 있는데 <화엄경>의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초의 선사에게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의중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엄경>은 그 유병세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이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너무 방대하고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화엄경은 모두 4종이다. 각각 40권본, 60권본, 80권본이 있고 티베트어로 된 화엄경이 있다.(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은 ‘십지품’과 ‘입법계품’ 등 일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되었다.) 이중 40권본은 <화엄경>에서 <입법계품>만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니 차치하고 60권본, 80권본, 그리고 티베트본이 있

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산스크리트에서 한역된 <화엄경>은 근대 이후 모두 세 차례 한글화 됐다. 탄허, 월운, 무비 스님이 역경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다고 누구나 <화엄경>을 볼 수는 없었다. 난해한 번역도 문제였지만 쉬운 한글이라도 한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더 깊이 풀어내주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한역 <화엄경>만큼 한글 <화엄경> 역시 접근이 어려웠다.

세주묘엄(世主妙嚴)이란 눈앞에 펼쳐진 두두물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한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 품에서는 법회에 모인 청중은 보살 대종이 20명, 그 외의 대중이 390명으로 모두 410명이다.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자비와 원력과 신통과 교화 등을 찬탄하는 노래를 끝없이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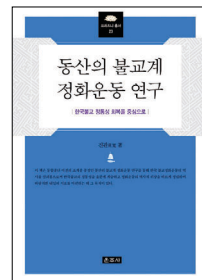
무비 스님은 서문에서 이 대목에 대해 “선계(禪偈)에 ‘구류동거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九類同居一法界紫羅帳裏撒珍珠)’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 놓은 듯하다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分別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들은 우주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이처럼 ‘세주묘엄품’에서는 모든 존재의 다른 이름인 수많은 불보살 신종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무비 스님은 불교를 인본사상으로 정리한다. 이 인본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화엄경>에 잘 드러나 있으며, 이 인본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곧 인본사상을 담고 있는 <화엄경>은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박재원 기자

‘동산’을 통해본 한국불교 정화운동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 지음 | 운주사 펴냄



우리의 역사에서 일본 강점기 36년은 사회 각 분야에 어려운 속제를 남겼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불교계에는 그로 인해 ‘불교 정화운동(이하 불교계 정화운동 또는 정화운동)’이라는 사건을 남겼다. 책은 진관 지음의 2012년 중앙승가대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으로, 정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동산 스님의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정화운동을 연구한 것이다.

조선불교계는 일제 강점기를 맞으며 대 처승이라는 일본불교 승단의 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처승 제도화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불교계는 심각한 정체성 갈등을 겪게 된다.

1945년 그리고 1954년 5월 20일 이승만의 정화 유지 발표 이후 일본불교에 대한 비판 없이 그 교단에 협력했던 대처승과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 선학원 측 비구 사이의 갈등이 불교계 정화라는 종교적,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정화운동’을 통해 1962년 4월에 비구·비구니만을 인정하는 통합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재탄생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책은 “불교정화운동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정화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있어 불교계의 내적 갈등을 평화적, 자주적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에 의지하여 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화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 위상에 대해 아직 올바르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책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정화운동에 대해 철학적, 사회적 관점을 토대로 학문적인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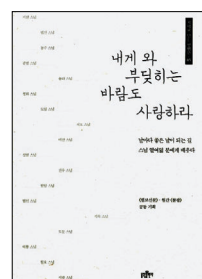
근과 비판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교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정화운동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당시 정화운동의 핵심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조계종 총정을 역임한 동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정화운동에서의 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화운동이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왜곡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책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화운동을 불교문화사적인 충돌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화운동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도 객관성 있게 접근했다고 보인다. 아울러 한국불교의 정통을 계승하고 정화운동을 주도하여 오늘날 한국불교의 기반을 구축한 동산 스님의 생애와 정화운동 역정을 심도 있게 추적함으로써 불교정화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동산의 업적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고된 삶이지만 생각 마음 달리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내게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

지선 스님 외 17인 지음 | 법보신문 월간 <불광> 공동기획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천원



“앞으로는 지금보다 세상이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탐진승을 강조합니다. 이는 것이 많은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낫다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행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몫이다. 정진하고 또 정진해 마음속 시끄러운 소음을 가라앉힐 일이다. 지오 스님 또한 마음 속 어둠을 녹이는 대 수행만이 없으니 진언을 외든 참선을 하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꾸준함이 욕심과 분노, 사사로운 감정이 가득했던 자리에 온전히 맑은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역설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불안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은 큰 재앙 없이 그저 평안하고 무

탈한 일상을 꾸꾸기 마련이다. 미산 스님은 만족하는 삶에 이르는 모퉁이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권한다. 자기 욕심과 방만 속에 인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 된다.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개인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한 도업 스님 역시 행복한 삶을 꾸꾸는 길에는 지식이나 학문, 명예, 부가 필요치 않다고 전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집착이나 생색내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무위심이야말로 개개인의 심안을 활짝 여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2,600여 년 전부터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해 왔다. 내 마음의 주인을 찾는 데 불교의 지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는 방법을,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스님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들려주는 경전을 통한 가르침, 선문답으로 유명한 선사들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다. 박재원 기자

향적 스님의 선시해설

선시, 禪詩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스님 해설 | 13,000원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값진 체험과 깊은 사색으로 걸러 낸 언어, 그리고 깨달음의 정서로 풀어놓은 선적 통찰력들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향적 스님은, 이 선시의 해설을 통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읽는 안목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응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과 내통하고 부처와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정휴正休 스님

조계종출판사 | 인연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_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보급_ 조계종출판사 서적총판사부 02)998-5847

대비주 수행의 힘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회향한 수행자들의 체험기!

생각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행대로 된다. 원(願)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절대공정의 묘약 신묘장구대라니 구도기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지음 | 신국판 | 부분컬러 | 312쪽 | 12,800원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몸은 ‘광명의 깃발’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마음은 ‘신통의 창고’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된 행복과 참나기 모습을 드러낸다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일기·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다라니의 힘

일상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된 행복과 참나기 모습을 드러낸다

일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 예화편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일산법상 지음 46면 | 율리판 | 200쪽 | 10,000원

비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a5@daum.net